

경남 지역경제 적신호… 인프라 투자는 경제 살리기의 밑거름

– 조선·제조업 불황으로 성장률 0%대, 인프라 투자는 지역 발전의 효과적 견인책 –

최 수 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sooyoung.choe@cerik.re.kr

지역 발전과 인프라 투자의 상관

한 지역의 발전 수준은 그 지역 전체의 경제적 성장과 지역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의 삶의 질로 평가될 수 있다. 지역경제 성장은 해당 지역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생산 활동의 총합을 의미하는 지역내총생산(GRDP)으로 평가된다.

국내 인프라 투자는 산업화 시기 이후 GRDP 증가를 위해 교통시설을 중심으로 한 사회기반시설과 지역적 특색에 맞는 산업·경제시설에 주로 집중되어 왔다. 지난 40년간 꾸준히 투자된 인프라가 생산 및 고용 유발 등 경제 활성화와 고용 안정화, 그리고 복지 증진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해 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GRDP와 같은 경제 성장 지표만으로 지역 발전 정도를 측정하는 것에 대한 한계점이 꾸준히 지적됨에 따라, 최근에는 사회 구성원의 행복이나 삶의 질과 같은 사회적 지표의 중요성이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지표로는 유엔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 BLI), 영국의 ‘지구행복지수’(Happy Planet Index, HPI), 미국의 ‘세계평화지수’(Global Peace Index, GPI) 등이

있으며, 국내에서도 2017년부터 ‘국민 삶의 질 지표’를 통계청에서 발표하고 있다.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은 다양하나 크게 삶의 기본 요건 만족, 경제력 향상, 복지 요구 만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는 인프라시설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교통, 상·하수도, 재해방지 시설 등과 같은 사회기반시설 확충은 개인의 생존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들을 만족시켜 주며, 산업단지 등 산업·경제시설 확충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 증가 등으로 개인의 경제력 향상에 큰 영향을 준다. 그리고 문화·복지·체육시설, 의료시설, 공원 등의 생활기반시설 확충은 개인의 복지 요구를 만족시켜 결과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지역 인프라 투자는 지역경제 성장과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함께 고려한 방향으로 투자되어야 지역 발전을 효과적으로 견인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를 요약하면 <그림 1>과 같다.

경남 지역의 인프라 실태

경상남도는 주력 산업인 조선, 자동차, 기계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때 수도권과 함께 국내 경제 성장을 주도해 왔다. 하지만 최근 제조업 불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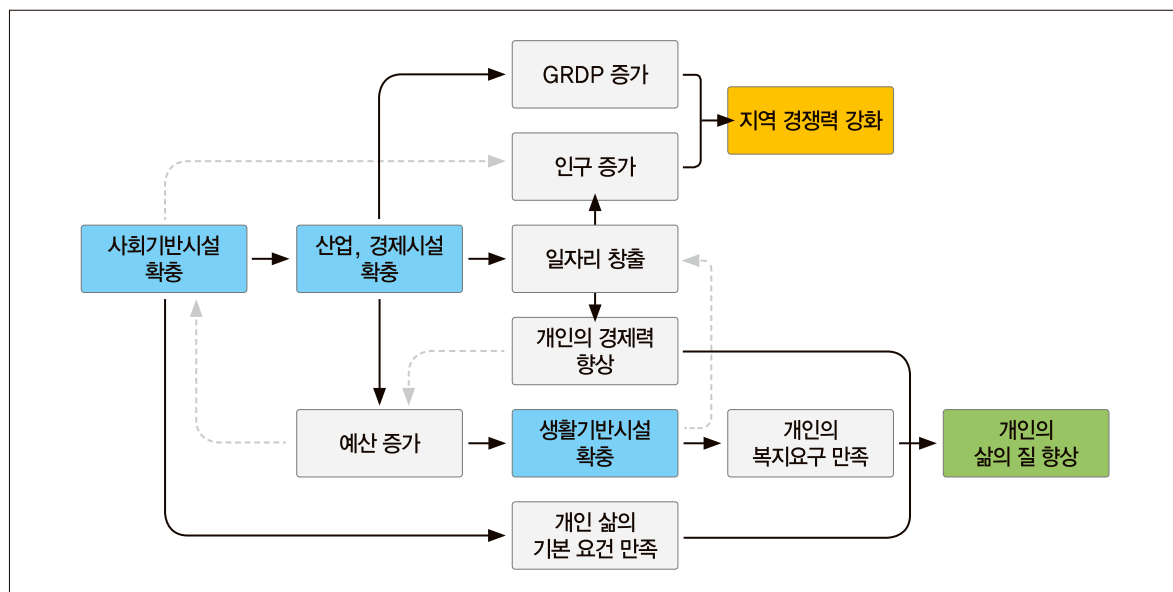
으로 인해 경남의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이 0%대로 떨어지는 등 지역 발전에 적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경남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지역 발전과 관련이 큰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경제와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한 인프라 실태가 선행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경남 지역 인프라 실태를 교통시설, 물관리시설, 주거 및 교육시설, 산업 및 경제시설, 그리고 기타 시설로 구분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통시설 실태를 살펴보면, 2016년 기준 경남의 도로 총연장은 1만 2,532km, 도로 교량 3,812개, 도로 터널 245개로 집계된다. 국토계수당 도로 연장 등 도로와 관련한 주요 양적인 지표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지만, 4차로 이상 도로 비율(경남 27.1%, 전국 31.0%)과 포장률(경남 89.9%, 전국 92.4%)과 같은 도로의 질적인 측면은 미흡한 실정이다. 철도시설은 총 8개 노선(고속철도 1개, 일반철도 6개, 도시철도 1개)이 운영되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해 시설 제공 수준이 낮다.

물관리시설의 경우, 경남의 상수도는 2015년 기준으로 수도관 총연장이 1만 6,676km이며, 급수 보급률은 99.5%로 전국 평균을 상회한다. 하지만 상수도 노후화로 인한 유수율(경남 73.6%, 전국 84.3%)과 누수율(경남 19.9%, 전국 10.9%)은 개선이 시급하다. 경남에는 10개의 국가하천과 671개의 지방하천이 있다. 이들의 총연장은 4,178.47km로 전국 하천의 13.83%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홍수로 인한 피해가 심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개수율이 42.82%에 머물러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아울러 경남에는 총 62개의 댐과 3,080개의 저수지가 있으나, 이 중 2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이 각각 83.6%, 94.0%로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다음으로, 주거시설 실태를 살펴보면 2016년 기준으로 경남의 총 가구 수는 9만 8,899호, 주택 보급률은 100% 이상으로 양호한 편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30년 이상 지난 노후 주거시설이 전체의 약 42.2%다. 특히, 단독주택의 81.8%가 30년이 넘는 노후 시설이다. 한편, 2017년 기준 경

〈그림 1〉 지역 발전과 인프라 투자의 관계



남의 학교시설은 총 1,686개교로 집계되며, 이 가운데 지은 지 20년 이상 지난 시설은 약 67.8%이다. 50년 이상 된 시설물도 약 37.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내 산업단지는 2017년 기준으로 총 208개(일반산업단지 116개, 농공단지 81개, 국가산업단지 10개, 도시첨단단지 1개)이며, 노후화 정도를 분석한 결과 20년 이상 된 노후 산업은 총 63개로 약 30.3%를 차지했다.

마지막으로 기타 시설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 경남 내 총 문화시설은 193개로 집계되었다. 인구 백만명당 문화시설 수는 57.79개로 전국 8위에 해당한다. 체육시설은 2016년 기준 116개로 집계되며, 20년 이상 경과된 시설은 38개소로 약 33.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남지사 건설 공약, 지역 발전 견인 효과 클 듯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공약 핵심은 최근 위기에 빠져 있는 조선업과 제조업 부활을 통한 ‘경남의 경제 살리기’로 볼 수 있다. 이는 5대 공약 중 1순위 공약인 ‘위기에 빠진 경남 경제 살리기’에 잘 나타나 있다. 구체적 어젠다로는 ‘경제혁신 특별회계 1조원 조성’, ‘경제혁신추진단 구성’, ‘경남 R&D 체계 구축을 통한 제조업 르네상스’, ‘제조업 혁신을 기반으로 한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새로운 시대 대륙으로 가는 물류의 전진기지 경남’이 있다.

김경수 지사는 후보 시절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15년 이상 호흡을 맞춰온 ‘원팀’임을 강조해 왔다. 이에 이번 당선이 국가산업단지과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서 긍정적 성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 산업단지와 관련해서는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3,398억원),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3,209억원),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1조 8,350억원)를 비롯하여 경



창원마산아구장 건립 현장 모습(출처 : 창원시청).

남 지역 항노화산업(양산 가산 일반산업단지, 산청 한방항노화 일반산업단지, 함양 인산죽염 항노화특화단지)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91.1km 노선에 5조 3,000억원 규모의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의 경우, 2014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정부재정사업으로 추진되다가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해 민간제안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민자 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공약에 정부재정사업으로 조기 착공 추진을 약속하였기에, 만약 이러한 성과가 이루어진다면 낙후된 서부 경남 발전에 큰 활력소가 될 뿐만 아니라 경남 지역 발전에 커다란 밑거름이 될 것이다.

경남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인프라 투자가 꼭 필요하다. 경남 인프라 투자는 지역 발전을 효과적으로 견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경제 성장과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하지만 제한된 예산으로 모든 시설물에 대한 수요를 만족할 수 없기에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민간투자 확대, 전문투자관리 조직 확보, 노후 인프라 개선 체계 구축, 지역 업체 경쟁력 확보 등을 통한 전략적이고 종합적인 인프라 투자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END**